

교회목표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Pilgrim

2013년도 표어

그리스도인, 작은 이들의 벗(마 25 : 40, 레 19 : 18)

행동지침

- 1. 말씀과 비전으로 하나 되는 교회
- 2.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해 헌신하는 교회
- 3. 기도와 전도의 사명을 다하여 부흥하는 교회

† 발행인 : 박노철 발행처 :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 (02) 558-1106 팩스 : (02) 558-2107 http://seoulchurch.or.kr

에스더서 강해

사생결단 그 이후 (에 5:1-8)

사명을 발견한 자의 인생은 가치가 있습니다. 사명을 발견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인생의 가치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우리에게 사명이 없을 리 없습니다.

에스더는 하나님 앞에서 사명을 발견하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 사생결단을 낸다는 심정의 단호함을 보였고, 그 이후에는 철저한 계획과 준비를 하였습니다.



박노철 목사
(서울교회 담임)

After the Risk of Her Life (Esth. 5:1-8)

The life of those who found their calling is valuable. When we find our calling, we find the value of life that was given by God. Christians and Jesus Christ's disciples certainly deserve to call our calling from God.

Esther, before God, found her calling and showed faith in order to achieve it at the risk of her life. After that she completely made a plan and prepared it.

1. 냉철한 계획

부르지도 않았는데 왕 앞에 나타난 에스더를 보고 왕은 그녀를 너무도 사랑스럽게 여깁니다. 그러나 에스더는 이런 상황에서도 전혀 흥분하지 않고 자신의 계획을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갑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기도 가운데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서두르지 않습니다. 전후좌우를 살피며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이끌어 가시는지를 깊이 묵상합니다. 반면 하만은 모르드개를 죽이기 위해 앞뒤 가리지 않고 서둘러 나무에 사형대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교만하고 지혜가 없었던 하만은 자기가 만들어 놓은 나무에 자기가 달려 죽었습니다.

2. 철저한 준비와 담대한 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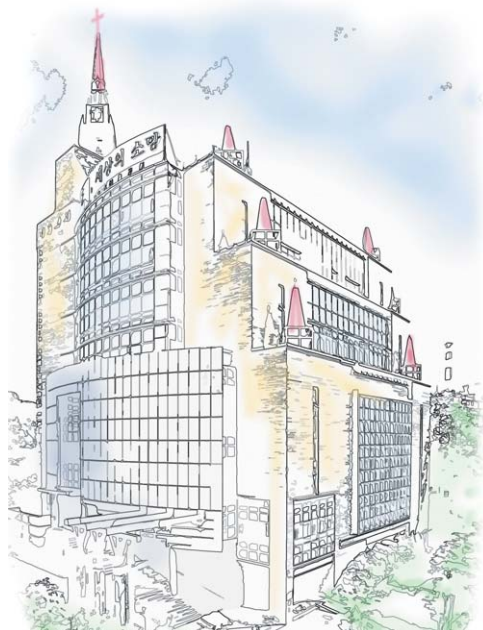
에스더는 왕 앞에 나가기 전 3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혼자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시녀와 모르드개, 그리고 유다 백성들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에스더에게는 기도한 자의 담대함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기도 가운데 계획을 세웠습니다. 기도할 때는 뜨거운 심정으로, 계획을 실행에 옮길 때에는 냉철함으로 하였습니다.

3. 하나님의 은혜

에스더서의 내용이 전개되면서 우리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일과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나머지는 철저하게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철저하게 준비된 일 위에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놀랍고 위대한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임하게 됩니다. 사명을 발견하시고, 사명을 위해 결단하며 철저한 준비와 치밀한 실행으로 에스더처럼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1. A cool-headed plan

The King saw Esther appeared before him in the court without his calling and was very pleased with her. However, Esther was never excited and advanced her plan without a problem. Those who look to God for help in the midst of prayer and have a clear plan are not in a hurry. They mediate deeply how God leads them by checking every direction. On the other hand, Haman had gallows built regardless in order to murder Mordecai in a hurry. But he who was arrogant and unwise had himself hanged on it.

2. The complete preparation and bold mind

Before she went to the King, Esther fasted and prayed to God for three days. Not only she but also Eunuch, Mordecai, and the Jewish people prayed together. Esther showed her boldness during prayer. She made her plan in the midst of prayer. When she prayed, she prayed with a warm-hearted mind, and when she carried out her plan, she worked it with a cool-headed mind.

3. God's grace

We can see what human beings are able to do, or not to do through the work which Esther has done. Therefore, we must do our best to prepare what we are able to do, and absolutely entrust God with the rest. The wonderful and great recovery and revival that only God is able to do will be accomplished through prepared work.

My beloved Christians!

When we do our best for God's calling, God's grace will come upon us. We need to identify, determine, prepare, and carry out it. I earnestly hope that you and I will have the victory like Esther.

2013년 순결서약식, 부활절에 거행

신청 및 교육은 부서별로 서약식-3월 31일(주일) 오후 찬양예배시간에

2013년 순결서약식이 3월 31일(부활절) 주일 찬양 예배 시간에 열린다. “주를 향해 자기를 깨끗하게”(요일3:3)라는 주제로 거행되는 순결서약식은 성의 올바른 개념을 정립하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라(레11:44)”는 하나님의 명령을 이루고자 함이다.

대상은 13세 이상의 모든 미혼 남녀(중등부, 고등

부, 청년부)로 결혼 전까지 하나님과 성도 앞에서 순결을 지킬 것을 서약한다. 순결서약을 한 젊은이들에게는 항상 서약을 상기할 수 있도록 ‘순결서약서’와 ‘순결서약기념품’이 주어진다.

순결서약신청자는 해당 교육부서에 신청하기 바라며, 오늘까지 부서별로 취합하여 교육위원회 서기에 명단을 제출하기 바란다.

목사님, 궁금해요!

이종운 목사 성경난해구절 해설 [79]

(문 78) 롯기 4:3-8에서 보아스가 그 친척과 한 거래행위는 신명기 25:5-10에 있는 계약조건과 상충되는 것이 아닙니까? 남편이 죽고 그 아내에게 아이가 없을 때 그 동생과 또는 근친자와 결혼하는 것은 레위기 18:16에 있는 근친상간의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닌가요?

(답) 신 25:5-10은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가 그의 남편의 형제에게 들어가서 아들을 낳아 죽은 자의 상속자가 되게 하라 하셨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죽은 자의 대가 이어지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가 이행하지 않을 경우엔 그를 공중 앞에서 부끄럽게 하라 했습니다(7-8). 즉 그 여인이 장로들 앞에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 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라 했습니다(9-10).

이들 조항을 비교해 보기 위해 즉 죽은 자의 계보를 잇는 것과 보아스가 무명의 친척과 한 거래를 살펴보기로 하였습니다.

첫째 죽은 자의 직계 가족 중 남은 형제가 없는 경우 (말론도 기론도 다 죽었을 경우) 가장 가까운 친척에게 결혼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둘째 만일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에서 얼마를 팔았을 경우 그에게서 가까운 기업 무를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무를 것이요(레 2:25)라고 했습니다.

셋째 모압 여인 롯과 같이 이스라엘인이 아닌 자 중 과부가 된 경우엔 신 23:3에 의거 대를 잇기 위한 결혼 의무를 거절할 수 있었습니다. 암몬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와 총회에 십대뿐 아니라 영원히 들어오지 못한다 하셨습니다.

넷째 이런 이유로 롯은 보아스에게 마음을 정했을 때 친척에게 겸손하게 요청해야 할 의무는 없었습니다.

이 네 가지 경우는 신 25장의 결혼 상속법에 배치된다고 보기 어려운 것입니다. 형제와 결혼하는 것이 근친상간이 되지 않겠느냐는 의구심은 이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가 동생의 부인과 어떤 경우에 결혼한다면(헤롯이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와 결혼한 것처럼) 그것은 분명한 범법행위입니다. 그리고 롯이 말론에게서 아들을 낳았다면 말론의 생존해 있는 형제나 가장 가까운 친척인 보아스와 결혼은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롯의 경우엔 이 두가지가 다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보아스와 결혼은 근친상간 죄와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다음주 계속)

“주차문제, 교회안팎에 우려”

- 당회가 특별 안내에 나서기로 -



"버스정류장 전후 20미터 구간은 절대 주차금지"
이 곳에 차를 대는 바람에 버스 기사와 뒤따라오던 차량 운전자들도 교회로 항의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



최근엔 섬김위원들이 세워 놓은 주차금지 안내판까지 치우고 주차하는 "임체주차"도 있다고 한다. 섬김위원들은 주차 안내에 협조해주길 간곡히 호소하고 있다.



"상습 민원발생 구간, 비로 이곳"
은마아파트로 드나드는 차들이 우회전하는 이 모퉁이에 차를 대는 "과감한 주차" 때문에 주민 민원이 특히 많이 발생하고 있다.

교회 앞 대로변 주차에 대한 주민 항의가 잇따르면서 교회 안팎으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여러 차례 공지에도 불구하고, 이웃 주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주차 사례가 반복되면서 관할 구청과 경찰서엔 "서울교회" 관련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급기야 지난 주일 당회는 장로들이 앞장서서 특별 안내에 나서기로 했다.

관할구청은 그동안 주일마다 교회앞 삼성로 양옆 갓길 일렬 주차를 허용해주었다. 그러나, 일부 구간(사진 참조)은 주민들의 차량이나 버스 등의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어 주차를 금하고 있다.

이를 위해 차량부 섬김위원들이 주일마다 안내를 하고 있지만,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금지 구간에 주차를 하는 경우가 많아 섬김위원들이 큰 곤란을 겪고 있다.

교회는 ▲대로변 주차시 주차금지 구간 속지 ▲가급적 대중교통 이용 ▲중직자들 강남구민회관 의무 주차 등의 원칙을 꼭 실천하여 이웃을 배려하고 덕을 세우는 서울교회 성도들이 되길 재차 호소하고 있다.

글: 김민철 집사, 사진: 이승준 성도(편집부)

설교사역도교부

예배의 부흥을 위해



박두호 장로
(설교사역 도교부
부장)

서울교회 설교사역도교부는 2007년 12월 9일 설교사역 도교부 세미나를 수료한 27명을 중심으로 이종윤 위임 목사님 설교사역을 위해 1,2,3부 예배 시간에 맞추어 팀별로 도교를 시작하여 2대 박노철 담임목사님의 설교 사역을 돕기위해 현재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수길 목사님의 지도로 권사회 회장들이 팀장을 맡아 60여명의 회원들이 도교하고 있습니다. 예배에서 목사님의 준비된 말씀이, 준비된 기도와 찬양이, 준비된 예배자들의 예배가 무엇보다 중요하기에 예배시간마다 도교의 열기는 뜨겁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하며 박노철 담임목사님의 설교사역 10가지 도교 제목을 가슴에 안고 예배가 마치는 시간까지 진행됩니다.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는 산제사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경배와 찬양과 교제의 시간을 통해 우리들의 영혼과 육신이 치유되고 회복되어야 합니다. 거룩한 예배, 준비된 예배를 위해, 우리들의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경배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외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린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께 나아가 나를 드리고 우리들의 삶을 드릴 때 하나님을 만나는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이 없어, 기도가 없어 사라져가는 교회가 너무나 많습니다. 살아있는 교회와 깨어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필요한 때에 민족 교회와 하나님의 종들을 위해 우리도 고침은 더욱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고 말씀과 기도로 사명을 다하는 교회로, 존경받는 목회자로 세워지기를 소원하며 온 교회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영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은혜충만한 예배를 위해 더욱 기도도 준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일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예배 부흥을 위해 목사님 설교사역 도교에 함께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비어있는 306호 기도의 자리는 당신의 자리입니다. 지금 신청해주세요.

시순절기도



이강진 장로 (1교구)

성령이시여 오시옵소서
성령이시여

번제단의 불로 임하시어
어찌할 수 없는 죄의 본성을 사르소서
택하신 백성의 성결을 위하여
부르짖는 기도의 영으로 오시어
가정의 새벽을 깨우고
교회의 새벽을 깨우소서

신부된 교회의 순결을 위하여
분별의 영으로 임하시어
논현동, 식발, 콘크리트 바닥
그 이름만 들어도 가슴 아린
첫 사랑을 버린 교회
자타가 부요하다 하나
가련함과 헐벗음을 모르는 교회
미지근해 토해 버리는
교회 되지 않게 하소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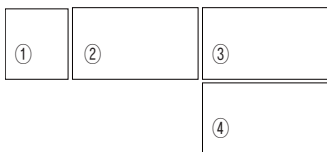
지적인 교만으로 가득한 바리새인
세속의 부귀를 탐한
사두개인 되지 않게 하시고
있만 무성한 채 열매가 없어
뿌리까지 마르는
저주가 없게 하옵소서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일지언정
기도로 통곡으로 지새던 그 때
허물 감싸고 사랑으로 하나 되던
첫 사랑
그 마음으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주여!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친히 세우신 교회를 긍휼히 여기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흠뻑 적시고
무덤의 자리까지 향유 들고 나아가
부활의 생명으로
충만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 ① 마가의 다락방과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306호 기도실
- ② 1부 예배를 위한 설교사역도교팀
- ③ 2부 예배를 위한 설교사역도교팀
- ④ 3부 예배를 위한 설교사역도교팀



종교개혁500주년 기념사업

제3회 종교개혁신학 학술대회 개최

3월 16일(토) 오후 2시 서울교회 - 개회설교, 이종윤 원로목사

안명준 교수(종교개혁500주년기념사업회 실행위원장)

2017년은 종교개혁 5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고 개혁자들의 정신을 더욱 잘 계승하여 한국 교회가 다시금 종교개혁의 정신으로 돌아가는 데 이바지하고자 2011년 3월에 이종윤 목사님의 주도하에 한국의 대표적인 7개 학회가 모여 <종교개혁 500주년기념사업회>를 조직하여 오늘까지 이르렀습니다.

사업회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1. 월례기도회: 매월 둘째 주 토요일 아침에 함께 모여 한국 교회와 사회를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는 모임입니다.
- 2. 종교개혁특강: 매월 개최되는 이 특강을 통해 종교개혁자들의 정신을 다시 한 번 숙고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 3. 종교개혁신학학술대회: 매년 두 차례(봄, 가을) 개최

합니다.

4. 종교개혁 명저번역 사업: 종교개혁자들의 명저들을 선정하여 현재 번역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금번에 본 사업회는 제3회 종교개혁신학 학술대회를 2013년 3월 16일 오후 2시 서울교회에서 개최합니다. 이번 학술대회는 학자들만의 토론장이 아니라, 그리스도인 모두가 참여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주제를 <종교개혁과 문화>로 잡았습니다. 개회예배 설교는 이종윤 목사님(본 사업회 대표회장, 서울교회 원로목사)께서 하시며, 이승구 박사(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께서 주제 강연을 준비하였습니다.

또한 종교개혁 명저번역자들의 위촉식도 거행할 예정입니다. 참석하셔서 종교개혁과 문화에 대한 강연도 들으시고, 종교개혁자들의 명저를 번역하는 데 헌신하기를 다짐하는 이들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호산나대학을 졸업하며

사회인으로
당당히
설 수 있게



1급 정신지체장애인으로 24년을 살아온 딸이 이제는 호산나대학 졸업 후 인턴과정을 통해 직장생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하나님께 한없는 감사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1989년 9월 병원에서 순산하고 퇴원하던 날, 고열과 황달이 있어 신생아는 입원치료가 필요하므로 산모만 퇴원하라고 했을 때, 엄마, 아빠는 불안한 가운데 의사선생님께 물어보았더니 다운증후군이라고 하였습니다. 당시 이러한 장애인은 평균 수명이 40세 정도이고 보통은 20세를 전후하여 사망한다고 하였습니다. 청천벽력이었습니니다.

학령기 동안은 정신지체장애인이 정상인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놀림 속에서 혼자인 채로 수업에 참여한 날이 많았지요. 같은 또래 아이들과 전혀 어울릴

수 없다는 것 때문에 울기도 했지만 누군가 한 명은 딸과 짝이 되어 함께 해 주었다는 사실만으로도 하루하루가 감사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진로가 막막할 때 1급 정신지체장애인이 대학에서 공부할 수 있는 곳은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서울교회 호산나대학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호산나대학에 입학하여 가평 캠퍼스에서 서비스학과 3학년을 졸업하였습니다. 그동안 요양보호사 자격증과 문서실무사(4급)자격증을 취득하였고, 바리스타 훈련을 통해 11월1일부터 일원동에 소재한 '라파엘' 카페에 주5일간 하루 3시간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딸이 취업하여 비록 적은 것이지만 첫 번째 월급은 하나님께, 두 번째 월급은 호산나대학에 전액 헌금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렇게 호산나대학 졸업생들이 사회인으로 당당히 우뚝 설 수 있게 된 것은 학교관계자 모든 분들의 헌신적인 관심과 배려였습니다. 또한 지적장애인을 위하여 최고의 시설을 갖춘 호산나대학에서 공부할 수 있었고 취업까지 할 수 있게 된 것은 서울교회 성도 여러분의 기도와 헌신의 열매라고 생각합니다.

호산나대학을 설립해주신 이종윤 원로목사님과 박노철 담임목사님의 깊은 관심과 애정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호산나대학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졸업생과 그 가족들도 하나가 되어 후원자로 세워지기를 바라며 기도하겠습니다. 저희 자녀들도 사회에 나아가 더욱 열심히 일하며 당당히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기도하며 지켜봐 주십시오.

졸업생 문가은 아빠 올림

꿈나무영어 성품스쿨 개강

매주 토요일 오전 9:30~12:30, 16주간

꿈나무 영어 성품 스쿨에서는 어제(9일) 제2기 개강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박노철 담임목사는 여호수아 1:3-5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꿈나무들'이라는 제목의 설교로 어린이들과 교사들을 권면하고 격려했다. '감사'와 '인내'의 성품을 배웠던 제1기 과정에 이어, 이번 제2기 과정에서는 '경청'과 '배려'를 주제로 매주 토요일 오전 9:30부터 12:30까지 총 16주 과정으로 진행된다.

1교시에는 영어성경공부가 진행되고, 간식을 겸한 휴식 시간 이후, 2교시 성품교실이 진행된다. 제2기에서 공부하게 된 46명의 어린이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성품을 닦아가는 믿음의 거목들로 잘 훈련되고 성장하도록 서울교회 모든 가족들께서 기도해주길 바란다.

제8회 호산나대학·호산나학교 입학식 성료

지난 3월 5일(화) 오전 10시 제8회 호산나대학·학교 입학식이 아가페타운 호산나대학 대강당에서 있었다. 1부 감사예배는 호산나대학 박노철 학장(현 서울교회 담임목사)의 인도로 진행되었다. 2부 입학식은 개식사를 시작으로 학장의 입학 허가 선언과 축사, 학부모·학생·입학생 선서, 교사소개, 신입생과 재학생 상견례 및 재학생 상장 수여 등으로 이뤄졌다. 올해 제8회 입학생은 호산나대학 28명, 호산나학교 2명 등 총 30명이다.



서울 음악교실 오늘 개강

-오후 1시40분, 601호-

서울 음악교실이 오늘 오후 1시40분에 601호에서 개강한다. 찬양대원으로 봉사하고자 하는 성도는 누구나 환영하며 10주간의 과정을 통해 합창에 필요한 호흡법, 발성법, 계명창법(악보없는 법), 리듬, 박자 등 음악 전반의 기초 이론을 쉽게 배우며, 유명 합창곡 감상, 유명 찬양곡 부르기 등을 배우게 된다. 성도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란다.

농어촌100교회운동 후원자

김정곤(김수정) 누계: 152팀 12,700,000 원

한가정 한선교사 후원자

임현숙 최용준(이윤경) 고후덕 박형주(김은성) 김정곤(김수정) 현재 253명 18,220,000원

비전2020 운동 후원자

김태기 서경학 김용자 손준근 한상준 임명숙 김해영 김정곤 김수정 권은주 권장환 권신익
누계: 개인 322명 단체 14개 5,000원 기준 - 1,015 구좌

동정

■ 이종윤 원로목사는 13일(수) 동원대학교 개강 채플설교를 한다. 15일(금) 인권위를 방문한다. 16일(토) 종교개혁500주년기념사업회 월례모임과 제3회 학술세미나 개최예배 설교를 한다.

■ 주간식당봉사: 도르가전도회(3.10) 루디아전도회(3.17)

■ 금주의 식사: 신종명 장로·이성애 권사 가정 김진달 집사·조선영 집사 가정 이병천 집사·조미영 집사 가정 (장례를 은혜 중에 마치고)

서울 주간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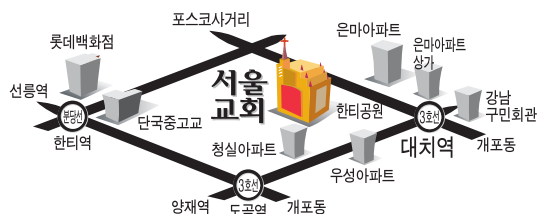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1. 각부서별 예배를 통해 다음 세대들이 큰 은혜와 도전 말씀을 받아 부흥의 거목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2. 사순절 기간을 통해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더욱 가까이 나아가 갈 수 있도록
3. 교회 주변 주처문제로 더 이상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고 철저히 질서를 지킴으로 주민들에게 칭송을 받는 교회 되도록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9시
	II 부 예 배 (영어동시통역)	오전 11시 20분
	III 부 예 배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오후 5시
	English Worship	오전 11시 15분
수 요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11시
	II 부 예 배	오후 7시
새 벽 예 배	오전 5시 30분(매일)	본 당 II 층
금 요 기 도 회	오후 8시	

■ 교회오시는 길



■ 서울교회QR코드

